

Sermon Principles:

Rev. Carla Meisterman World Communion Sunday Oct.2, 2011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은혜교회와 Balmoral 교회, Circle of Faith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그 가운데에 미국 땅 넓고 넓은 지역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대한 많은 불화와 오해와 비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함께 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 즉,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랑의 사도로 한 건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또 다른 하나를 보다 더 잘 알고, 발견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와 경험을 넘어서서 서로가 교통 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날을 기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함께 기념 하면서, 계속하여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며 발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도시에 평화의 씨를 뿌리며, 온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수확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서 성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